



문 의	특허심사1국 생활가전심사과	과 장 윤병수 사무관 성시경	042-481-3380
	2015년 3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18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 베테랑심사관이 심사한다.

- 특허청,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시범실시 -

특허청은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변리사의 도움 없이 개인발명가 스스로 특허출원(무(無)대리 개인출원)하는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특허명세서에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소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도 제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거절되는 비율도 72%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14%에 비해 매우 높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특허를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보정서(특허받지 못하는 이유인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허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한 서류) 미제출율 : 대리출원 14%, 무대리출원 72%

특허청은 개인발명가가 특허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대

리 개인출원이 많은 기술분류 심사관 중 심사경력이 풍부한 심사관 8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베테랑 심사관들이 담당할 기술분류는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잡화, 전기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 분류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출원이 매우 활발하다*.

* 개인출원 비중 : 8개 기술분류 평균 44.2%, 청 전체 18.8%

전담심사도 일반적인 특허심사와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발전된 정도인 진보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다만 개인이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핵심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된 내용 전체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거절이유가 치유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해 제시하거나, 보정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좋은 특허로 권리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심각한 거절이유가 있어서 보정해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등 발명을 개량해서 출원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IP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에 무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권리화되고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개인발명가들의 좋은 특허가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발명을 주로 심사하는 특허청 특허심사1국(국장 천세창)에서 오는 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무대리 개인출원에 대한 전담심사의 효과가 검증되고 개인발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이 프로그램을 기존 포지티브 심사와 연계하여 전체 심사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 「無대리 개인 전담심사」 심사1국 시범운영 계획(안)

「無대리 개인 전담심사」 심사1국 시범운영 계획

□ 추진배경

- 無대리·개인출원은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될 가능성이 높음** (붙임1 참조)

* 의견제출통지 후 보정서 미제출율('14년 종결건) : 대리출원 14%, 無대리·개인출원 77%

** 등록률('14년 종결건) : 無대리·개인출원 15.8%, 전체 67.6%

- 개인출원건의 원만한 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 고객유형 중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14년 상·하반기 고객만족도조사)

⇒ 無대리·개인출원건의 전문적 심사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개인발명가의 좋은 아이디어 사장 방지 추진

* (美사례) Pro Se(for oneself, 無대리) Examination Pilot : 경력심사관으로 구성된 無대리 시범심사부 창설, 특히 관련 상담 등 실시('14.10월, 붙임2)

□ 無대리·개인 전담심사 시범운영(안)

- (TC, 심사관) 無대리 개인출원이 많은 기술분류(pro se TC) 중 적절한 경력 심사관이 있는 TC를 선정하여 전담심사관 지정

< 無대리·개인출원 시범운영 TC 및 전담심사관 >

	생활가전	주거생활	국토환경	주거기반	전력기술	정밀화학	농식품	전자부품
분류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잡화	커넥터, 소켓	시멘트, 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
심사관	김종섭	김원배	전병호	이춘백	이재빈	김란	하혜경	최우준

- (처리방향) 진보성뿐만 아니라 시장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장성까지 갖춘 아이디어의 경우, 청구항1 작성 제시* 등 강화된 포지티브 심사 실시

	명세서 보정 가능	명세서 보정 불가
심사 방향	○ 청구항1 작성 제시 ○ 보정방향 상담 등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또는 재출원 안내 ○ 공익변리사 안내 등

* (美사례) 무대리 출원에 특허성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결정 받을 수 있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작성해서 제시해야 함(붙임2)

- 청구항1 작성 제시 또는 보정방향 상담 시, 국에서 적정성 검토 후 추가 심사점수* 부여

* 포지티브심사점수 0.5점(지수0.008) 부여(일반 개인·중소 진보성 보정방향제시는 0.3점)
(참고) 매월 청지수 0.472점을 1국 포지티브심사에 배정, '15.3월 0.426점 사용

- 평범한 아이디어의 경우, 거절이유만 쉽고 간단하게 통지

- (심사물량) 시범운영 TC 내 다른 심사관 물량을 포함하여 매달 10건(매달 착수실적의 약 40%)까지 전담심사 대상건 착수

- 시범운영 TC 내 다른 심사관들은 명세서 내용파악이 가능한 출원건 위주로 전담심사관에게 이관

* 명세서 내용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기재불비가 심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심사

- (결과 관리) 착수 및 종결 후 전담심사일지 작성(붙임3 참조)

- (결과활용) 전담심사 시범운영 실효성 분석* 후 전청 확대 검토, 우수 '나홀로 발명' 사례 및 우수 심사사례 선정·홍보

* 無대리·개인출원에 대하여 일반심사와 전담심사 간 통계지표(등록률, 포지티브심사 실시비율 등) 분석 추진